

에스트래픽, 3분기 누적 매출 854억 원, 전년동기비 매출액 5% 증가

▶ 누적 매출액 854억, 영업이익 10.6억 기록하며 실적 개선세 뚜렷

▶ 도로/철도, 전기차 등 전 사업부문서 수주 이어져... 성공적 사업 수행으로 시장 내 호평 이어져

<2022-11-14> 교통솔루션 전문기업 에스트래픽(234300, 대표이사 문찬중)이 연결재무제표기준 2022년 3분기 경영실적을 14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.

에스트래픽(이하 회사) 3분기 누적 매출액은 85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% 상승, 영업이익은 10.6억 원으로 흑자전환하여 실적이 개선되었다. 또한 비중이 커진 글로벌사업 부분 환차익으로 당기순이익은 40.6억원을 기록하였다.

3분기 각 사업별 누적 매출 성과를 살펴보면 도로사업 356억 원, 철도사업 170억 원, 전기차사업 114억 원, 글로벌사업 214억 원을 기록했다. 수주 또한 2분기에 이어 3분기도 도로/철도, 전기차, 글로벌사업 등 전 사업 부문서 계약이 고르게 이어졌다.

3분기 회사 주요 수주 성과로는 방글라데시 최초 고속도로인 N8도로 ITS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 수주로 266억 원 규모이다. N8도로는 회사가 지난 2분기에 177억 원 규모로 ITS설비 및 부대시설 구축 계약을 체결한 파드마대교 사업(방글라데시 최대 국책사업)과도 연계된 인프라다.

회사 관계자는 “도로/철도 등의 기반시설은 통상 가치보존을 위해 유지보수 및 개량이 지속되는데 이를 위해 초기 수주 기업이 향후 지속관리 추가계약을 맺는 경향이 있다”며 추가계약의 기대 또한 내비쳤다.

에스트래픽 문찬중 대표는 “에스트래픽은 미국 워싱턴 역무자동화설비 구축, 아제르바이잔 M1고속도로 CCTV 및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등 세계 각국서 다양한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바 있다”며 “글로벌 시장에서 에스트래픽의 위상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전세계 교통시스템에 우리의 솔루션을 적용하겠다는 비전 실현을 위해 전 임직원이 더욱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한편 에스트래픽은 지난 10월 주주총회서 전기차 충전사업부 물적분할 계획이 가결됨에 따라 4분기 중 신설법인이 설립될 예정이다. 자체 전기차 브랜드 ‘에스에스차저’는 ‘소비자가 선택한 2021 최고의 브랜드(전기차충전서비스 부문)’에 선정되는 등 전기차 충전시장서 호평 받아왔다.